

# ‘원칙과상식’ 3인, 민주당 탈당 선언 “이재명 체제로尹 심판 못해”

김종민·이원욱·조용천 의원, “새로운 길 갈 것”… 윤영찬 의원은 잔류 선언 “미안해”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결사체 ‘원칙과상식’이 10일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오전 전 대표 등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활동을 함께했던 친이 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탈당 발표 직전 당에 남겠다고 탈당 대열에서 이탈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용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3명은 “한국 정치에 이의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은 미동도 없다”며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세 분의 총리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한다. 왼쪽부터 조용천 의원,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절망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했다”며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의는 바닥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50% 민심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전체주의적 기득권 양당제로는 변화된 한국 사회와 시민 의식을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써야 할 때”라며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

한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주체를 재구성하겠다”며 “원칙과상식은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광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원칙과상식 대열에서 이탈해 당에 잔류하겠다고 선언한 윤 의원은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원칙과상식 탈당 발표를 불과 10여 분 남겨두고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적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탈당 선언을 앞둔 윤 탈당하지 않기로 최종 결단을 내리고, 원칙과상식 의원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이탈 관련 질문에 “네 명이 같이 해온 과정에 비춰보면 당혹스럽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윤 의원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가고자 하는 것은 민심을 받들고 새 정치의 이정표를 만드는 것이기에 그 길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의 최종판단을 듣고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동행동 하자고 항상 강조했고,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져서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을 향해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양 극단의 혐오정치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

##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 보답할 것”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 당한 이재명 대표, 8일 만에 퇴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줬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준 부산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준 서울대병원 의료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입장을 밝히며 목을 만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흉기 피습 8일만인 이날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김모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뉴스

## “완주·전주 통합, 정치 이익 따라 다룰 문제 아냐”

민주 정의훈 예비후보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치 이익에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라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훈 국회의원의 예비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지난 1997년, 2007년, 2013년 등 세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라며 주민 뜻에 반하는 행정은 결국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4일 시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10대 역점 전략 중 첫 번째로 전주-완주 통합을 꼽으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된 만큼 민간의 자발적 통합 운동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뜻을 밝혔지만, 가장 핵심인 주민 동의 부분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의 본연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전주지역 후보들이 이슈로 꺼내두고 나온 완주·전주 통합에 덩달아 춤추는 우스운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통합의 기본은 균형을 전제로 출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지역내총생산(GRP)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 전북 발전을 이끌 지역은 완주군이라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시(市) 승격을 완주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합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완주·전주 통합문

제를 지역민의 눈길을 끄는 이용 수단이 돼선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완주·전주 통합 카드를 꺼낸 우범기 시장과 이를 찬성하는 일부 전북 정치권을 향한 언급도 이어졌다.

먼저 우범기 시장에 대해 그는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을 뜻하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사자성어가 있는 우 시장께서 깊이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며 “기재부 출신 단체장으로서 각종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지금 전북과 완주는 추적이 아닌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 가는 단계에서 있다”라며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정치와 맞물려 끌고 가는 것은 지역민의 뜻에 반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통합 논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해 정의훈 예비후보는 “완주와 전주가 연대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완주 통합으로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완주 지역민들의 이익이 무언지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취재반

## 군산시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수용”

청렴도 노력도 3등급 등 받아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도 노력도 3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노력도, 청렴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나온 결과로 청렴도 노력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청렴체감도 부문 공무원(직무관계자)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들이 체감했을 때 의원 및 의회의 갑질 행위와 부당한 요구

및 지시,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이익 추구 등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시의회는 부정적 평가를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민원해소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고압적으로 비취지거나 자료요구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가자인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의정활동 외 부문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갑질 및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혁신할 것이며, 어떠한 압력에도 적당하고 공정하게 예산 집행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전주 되살리고 새만금 지킬 것”

민주 양경숙 의원, 총선 전주를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4월 제22대 총선에서 전주를 출마를 공식화 했다. 양 의원은 1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전주를 되살리고 새만금을 지켜내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지금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지킬 수 있는지, 소멸해 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

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활동 방향으로 “첫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의 가치를 계승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양 의원은 “둘째, 민주당의 단합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 감찰독재를 몰아내고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감찰독재, 예산독재와 싸워서 재정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의료·복지 체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전주를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새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산업기지로 만들어 새만금을 새로운 국가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서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 고향 민심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분투했던 저의 노력을 눈여겨보셨다면, 다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린다”는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실 출신인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주창하며 활약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연수원장, 정책위원회 상임부 의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당 내 재정 정책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취재반

## “첨단 역사·문화·관광도시 익산”

민주 이희성 예비후보, 총선 익산을 출마 공식화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예비후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 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존재감이 사라진 위기의 익산 건설행을 위해 나섰다”라며 “익산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첨단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희성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한병도 의원을

비판하며 자신을 피력했다.

그는 “한때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지켜온 익산시가 지난 2018년 1월 심리적 저항선인 인구 30만명이 붕괴됐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한병도 의원을 보유한 익산시가 지난 4년간 2만 명의 인구가 증발된 것이다”라며 “같은 기간 익산시와 비슷한 순천은 에버랜드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익산의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꽃을 피우고 그러



더불어민주당 이희성 예비후보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을 첨단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별취재반

한 정치적 목표에 동의하고 실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새롭게 변화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다며 △익산왕경재현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을 홀로그램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가미해 재현시키고, △공공박물관 건립 △개2에버랜드 유치 등을 통해 익산을 호남 최고의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희성 예비후보는 남성과와 원광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조직본부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울금읍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특별취재반